

오스카 와일드 (1854~1900)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아버지는 유명한 안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시인이었다.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했다. 1881년 《시집(詩集)》으로 등단해 88년에는 동화집 《행복한 왕자》를 출간했다. 이 동화집은 1884년에 결혼한 그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 두 아들을 위하여 쓴 것으로 그 무렵의 사회에 대한 풍자가 넘치는 걸작이다. 그 후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희곡 《살로메》, 《하찮은 여인》, 《이상적인 남편》 등을 발표하면서 와일드의 명성은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1895년, 알프레드 더글러스와의 동성연애 혐의로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년 뒤 출감한 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에서 빈궁하게 살았다. 1900년 11월 30일, 허름한 호텔방에서 가족도 없이 친구와 호텔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46세의 나이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한 불운한 천재’, ‘사회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오스카 와일드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근엄함과 위선을 거부하고 날카롭게 풍자했다. 그 때문에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작가였다. 예술지상주의의 대표자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내면의 소리에 충실했던 그의 삶과 작품은 사후 100년이 지나서야 새롭게 조명되었고 마침내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도로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게 된다.

「**행복한 왕자**」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다. 생전에 행복한 왕자는 세상 사람 모두 자신처럼 행복한 줄 알았다. 그렇지만 죽고 나서 동상이 되어 도시를 굽어보며 세상에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무리에서 떨어져 행복한 왕자의 동상으로 날아

온 제비에게 자신의 몸에 박힌 사파이어, 루비, 금박을 고통받는 이들에게 모두 나눠 주게 한다. 그렇게 행복한 왕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제비도 추운 겨울 날씨에 점점 지쳐가는데...

「나이팅게일과 장미」 한 청년이 사랑하던 소녀는 붉은 장미를 가져오면 무도회에서 함께 춤을 추겠다고 하였다. 청년은 괴로웠다. 그의 정원에는 붉은 장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통과 슬픔으로 울부짖는 남자. 밤마다 사랑을 찾아 노래 부르던 나이팅게일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가시에 박고 그 피로 붉은 장미꽃을 피워낸다. 그러나 그 꽃을 받은 소녀는 붉은 장미보다 보석이 더 값지다고 하면서 냉랭하게 돌아선다. 나이팅게일의 희생이 독자들의 가슴을 저리게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 주는 글이다.

행복한 왕자

【제1장】 아름다운 동상

p. 12-13 어느 도시 광장에, ‘행복한 왕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아주 잘생긴 동상이었다. 그의 두 눈은 빛나는 사파이어였고 몸은 순금으로 덮여 있었다. 그의 칼에는 반짝이는 루비가 있었다. 그 도시의 시민들은 그를 보고 매우 감탄했다.

어느 날 아침, 시의원들이 모여서 그 동상을 칭찬했다. “그는 풍향기처럼 균형이 잡혀 있군요.” 그들 중 한 사람이 외쳤다. 그는 자기가 예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자신이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물론 것처럼 실용적이지는 않죠.”

p. 14-15 잠시 후, 많은 사람들이 동상 앞에 모였다. 아주 슬퍼 보이는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이 도시에서 누군기는 행복하더니 잘된 일이군.” 한 어머니가 울고 있는 자신의 이들에게 말했다. “네가 행복한 왕자 같으면 좋겠구나. 행복한 왕자는 뭘 달라고 울 생각은 꿈도 꾸지 않거든.” 아이들 몇 명이 성당에서 나왔다. 그들은 선생님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천사와 꼭 닮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천사를 본 적이 없잖아.” “아! 하지만 꿈에서 봤어요.” 아이들이 외쳤다. 그들의 선생님은 기분이 나빴다. 그는 아이들이 꿈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작은 제비 한 마리가 그 도시 위로 날아왔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러 이집트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몇 주 더 일찍 떠났고 그 제비는 뒤에 남아 있었다.

p. 16-17 그 제비는 초봄에 갈대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에 반했다. “사랑해.” 그가 곧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봄과 여름 내내 그녀 주위를 날아다녔다.

다른 제비들이 그를 놀렸다. “어떻게 넌 갈대에게 반할 수 있니?” 그들이 웃었다.

다른 제비들이 떠난 후, 그는 갑자기 아주 외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내게 말도 걸지 않아.” 그가 투덜거렸다. “게다가 그녀는 항상 바람과 시시덕거리. 그녀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이집트에 가서 햇볕 속에서 놀래?” “아니, 안 갈 거야. 난 여기 내 집이 좋아.” 그녀가 말했다. “넌 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구나.” 그가 소리쳤다. “난 피라미드를 보러 기껏여. 안녕!” 그는 갈대를 그녀의 비람에게 남겨두고 떠났다.

p. 18-19 작은 제비는 몇 시간 동안 날아갔다. 마침내, 그는 행복한 왕자의 도시에 도착했다. “오늘 밤에는 좀 쉬어야 하는데 어디서 머물지?” 그가 물었다. “이 도시에 잠자기 좋은 장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때, 그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보았다. “쉬기에 딱 좋은 곳이 있군. 사람들과 동물들로부터 높이 떨어져 있고, 또 신선한 공기도 많아.” 그는 동상의 두 발 사이에 들어가 웅크렸다. 그는 황금빛 동상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왕실용이라 해도 될 만큼 아름다운 침실을 갖게 됐어!”

거의 잠이 들 무렵, 제비는 깃털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상하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오잖아.” 그러고 나서 그는 또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는 갑자기 좋은 곳이 아니군.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어.” 그가 말했다.

p. 20-21 그런데 제비가 날려고 준비를 할 때, 또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동상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나와 그의 황금빛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새가 물었다. “난 행복한 왕자야.” 동상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울고 있잖아요. 당신은 행복할 리가 없어요!” 제비가 말했다. “살아 있을 때는, 난 멋진 궁전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

멋진 정원에서 놀며 궁전 밖을 나가 본 적이 없었지. 그곳에서 난 아주 행복했어. 내가 아주 행복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날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난 궁전 성벽 밖의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보이고, 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 내 심장은 단단한 납으로 되어 있는데도, 나는 눈물이 나.” 행복한 왕자가 설명했다.

p. 22 제비는 깜짝 놀랐다. ‘그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여기서 끔찍한 것들을 많이 본단다.” 동상이 말했다. “이 도시의 어느 먼 변두리에 작은 집이 한 채 보여. 아주 가난한 집이야. 창문을 통해 한 여자가 보이지.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녀는 양재시이고, 그녀의 손은 상처로 아주 빨갛고 이파. 항상 비늘에 손가락을 찔리거든. 그녀는 여왕의 궁녀가 입을 드레스를 만들고 있어. 궁녀는 다음 궁중 무도회에 그것을 입고 갈 거야. 드레스를 만드는 것은 그 가난한 여자애겐 아주 힘든 일이야. 그녀는 드레스에 시계풀을 수놓고 있어. 그녀는 너무 피곤하지만 밤새 일을 해야 해.”

p. 24-25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많이 아프고 굶주리고 있단다. 그녀에게는 아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 작은 제비야, 내 칼에서 루비를 떼어 그녀에게 줘. 난 이 높은 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하지만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요.” 제비가 말했다.

“그들은 따뜻한 햇볕과 연꽃을 즐기고 있어요. 그들은 위대한 이집트 왕의 무덤을 볼 거예요. 그들은 리넨 천에 싸인 미라를 보고 향신료 냄새를 맡을 거예요. 그들은 그의 무덤 안에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볼 거예요.” 작은 제비가 말했다.

[제 2 장] 사명을 떠날

p. 28-29 행복한 왕자는 작은 제비에게 부탁했다. “작은 제비야! 제발 이렇게 해 줘. 하룻밤만 머물러 줘. 그 가난한 여자와 그녀의 아픈 아들에게 루비를 갖다 줘. 그들은 너무 고생하고 있어.” “하지만 난 사내아이들이 싫어요.” 제비가 대답했다. “작년 여름에, 못된 남자아이 두 명이 강에 와서는 내게 돌을 던졌어요. 난 돌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난 아직까지 화가 나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매우 슬퍼 보였고 그래서 제비가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옆으로 날아갔다. 그는 칼에서 루비를 떼어 냈다.

p. 30-31 제비는 여러 웅장한 건물들을 지나 도시 위로 멀리 날아갔다. 그는 궁전 위를 지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한 아름다운 이기씨기 그녀의 에인과 함께 발코니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위를 날고 있을 때, 제비는 그가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별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하늘이요! 사랑의 힘은 정말 놀랍군요!” 소녀가 대답했다. “내 드레스는 시계꼴로 수놓아지고 있어요. 양재사가 너무 게을러서 드레스가 무도회 때까지 준비되지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제비는 그 가난한 여자의 집을 향해 계속 날아갔다. 그는 항구 위를 날았고 배에서 흘러나온 빛을 보았다. 그는 빈민가 위를 지나갔고 사람들이 물건 값을 흥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다. 그는 창턱에 내려앉았다. 침대에 누워 있는 남자아이를 보았는데, 아이는 열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여전히 테이블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p. 32-33 작은 새는 안으로 날아가 그 여자의 손 옆에 루비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이 쪽으로 날아갔다. 그는 아이 머리 주위에서 자신의 날개로 부채질을 했다. “아, 시원하다.” 아이가 중얼거렸다. “병이 낫고 있나봐.” 아이는 곧 깊이 잠들었다. 제비는 그들 곁을 떠나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갔다. “당신이 부탁한 일을 다 했어요.” 그가 동상에게 말했다. “날씨는 춥지만,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네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이야.”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곧 그의 발 아래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제비는 목욕하러 강으로 날아갔다. 한 교수도 그 강에 있었다. 그가 제비를 보자 말했다. “제비네? 그것도 겨울에! 참 희한한 일이군.” 제비는 그때 동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가 말했다. “난 오늘 밤 이집트로 떠나야 해요. 내가 떠나기 전에 해 줬으면 하는 일이 있나요?”

p. 34-35 왕자는 다시 한 번 그에게 부탁했다. “작은 제비야! 제발 오늘 밤에 가지 마. 제발 하룻밤 더 나와 있어 줘. “하지만 난 가야 해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내일 두 번째 폭포로 날아갈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파피루스 수풀 사이에 있는 하마들을 볼 거예요. 또 사자들도 아침에 물을 마시러 강가로 올 거예요. 그들은 폭포 소리보다 더 크게 포효할 거예요.” “제발 오늘 밤에 가지 마, 작은 제비야! 이 시의 또 다른 곳에, 한 젊은 남자가 다락방에 있어.

그는 극장의 감독을 위해 희곡을 쓰려고 해. 그런데 그에겐 돈이 없어. 그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글을 쓸 수 없어. 제발 오늘 밤 머물러 줘!” “당신을 위해 하룻밤 더 그렇게 할게요. 또 다른 루비를 그에게 갖다 줄까요?” 제비가 물었다.

p. 36-37 “아니, 이제 루비는 없어.” 왕자가 대답했다. “내 눈에 있는 사파이어밖에 없어. 그 사파이어는 아주 진귀하고 값비싼 것들이야. 그것들은 천 년 전에 인도에서 온 거야. 사파이어 하나를 그 젊은이에게 갖다 줘. 그는 먹을 것과 빨감을 살 거야. 그리고 나서 자신의 희곡을 완성시킬 거야.” “하지만 당신의 눈을 뽐낼 수 없어요!” 제비가 외쳤다. “제발, 작은 제비야, 내 부탁대로 해 줘.” 행복한 왕자가 말했다.

제비는 그의 눈으로 날아가서 사파이어를 뽐아야 했다. 그는 다락방에 있는 그 젊은 남자를 찾아 날아갔다. 지붕에 구멍이 있어서 제비는 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 남자는 제비가 날아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지쳐서 손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제비가 떠난 후, 그는 테이블 위에 아름다운 사파이어가 놓인 것을 발견했다. “기적은 정말 있어!” 그가 외쳤다. “이건 뽀얀테에서 온 게 분명해. 이제 난 먹을 것과 빨감을 살 수 있고, 내 희곡을 완성할 수 있어.” 그는 기뻐서 외쳤다.

p. 38-39 만족감을 느끼며, 제비는 다음 날 항구로 내려갔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난 이집트로 간디네.”라고 그가 노래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갔다. “오늘 밤 난 작별 인사를 해야 해요.” 그가 동상에게 말했다. “작은 제비야!”

하룻밤 더 나와 함께 있어 줘.” 행복한 왕자가 그에게 세 번째로 부탁을 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예요. 눈과 서리가 내릴 거예요. 난 이집트로 날아가야 해요. 언덕은 따뜻하고, 내 친구들은 등지를 틀고 있어요. 봄이 되면 당신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할게요. 당신에게 아름다운 돌 두 개를 갖다 줄게요. 그것들이 당신의 새로운 눈이 될 거예요.” 작은 제비가 말했다.

p. 40-41 “저 아래 광장에 성냥을 파는 어린 소녀가 있어. 그녀는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어. 그녀는 신발도 양말도 없어. 그녀가 파는 성냥이 도랑에 빠져서 못 쓰게 됐어. 만약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때릴 거야. 나의 다른 한쪽 눈을 그녀에게 갖다 줘. 그러면 그녀는 집에 갈 수 있어.” 왕자가 그에게 부탁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과 하룻밤 더 같이 있을게요. 하지만 당신의 다른 한쪽 눈을 뽑을 수는 없어요.” 새가 말했다. “넌 해야 해. 제발, 제비야!” 왕자가 부탁했다. 그래서 작은 새는 그의 눈을 뽑아서 어린 소녀에게 주었다. 소녀는 그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집으로 뛰어갔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이켜서 말했다. “이제 당신은 앞을 볼 수 없어요. 내기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아니야. 겨울이 오기 전에 넌 이집트로 가야 해.” 왕자가 말했다. “아니예요. 난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제비는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잠이 들었다.

【 제 3 장 】 중대한 결정

p. 44-45 행복한 왕자는 앞이 안 보였다. 제비는 그의 어깨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는 왕자에게 여러 신비한 곳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는 나일 강, 스펡스, 그리고 메마른 아프리카의 사막을 설명했다. 그는 상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낙타와 코끼리 같은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행복한 왕자는 그의 이야기를 무척 즐겼다. “네가 나에게 말해 준 것들 모두 아주 흥미로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고통이 가장 관심 가는구나.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도시 위로 날아가 네가 보는 것들을 내게 말해 줘.”

p. 46-47 제비는 왕자가 부탁한 대로 했다. 그는 하늘을 날았다. 저 밑으로 그는 자신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습한 골목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다리 아래에서는 서로 꼭 껴안고 있는 두 소년을 보았다. 그들은 온기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경비원이 와서 그들에게 소리쳤다. “어서 여기서 꺼져!” 그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행복한 왕자는 더욱 더 슬퍼졌다. “내 몸에 있는 금을 떼어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줘.” 그가 말했다. 제비는 동상에서 떼어낸 금 조각들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곧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생겼다. 그들의 얼굴에 환

한 미소도 생겨났다. 이것이 행복한 왕자를 다시 행복하게 해 주었다.

p. 48-49 제비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었다. 그 도시에 많은 눈이 내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빵집 밖에서 빵부스러기를 발견했다. 그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날개를 펴덕거렸다.

얼마 후, 작은 제비가 생각했다. ‘난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는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가서 물었다. “가기 전에 당신의 손에 키스해도 돼요?” “응, 네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넌 이집트에 있는 네 친구들을 찾아야 해. 넌 이 도시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이 아니라 내 입술에 키스해 주었으면 좋겠어.” 행복한 왕자가 말했다. 제비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왕자님, 난 이집트가 아니라 죽음의 집으로 가요. 죽음은 잠의 형제예요, 그렇죠?” 작은 새는 왕자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자의 발 아래 쓰러져 죽었다.

p. 50-51 제비의 죽음과 동시에 ‘딱’ 하는 큰 소리가 났다. 왕자의 심장이었다. 그의 심장이 두 동강이 났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광장을 시찰하고 있었다. 시의원들도 모두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동상을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다. “행복한 왕자를 보세요! 정말 흉해 보이는군요!” 시장이 외쳤다. 시의원들이 모두 서둘러 함께 말했다. “그래요. 정말 흉해 보여요.” 시의원들은 시장의 말에 언제나 맛장구쳤다. “갈에 있던 루비가 없어졌소. 눈에 있던 사파이어도 사라졌고 금도 모두 없어졌소.” 시장이 말했다. “동상이 마치 거지같군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죽은 새까지! 새들은 이곳에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가 말했다.

p. 52-53 곧,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광장에서 치워졌다. 그 지역 대학교의 한 미술 교수가 말했다. “그는 아름다움을 잃었으니 이제 쓸모없어졌어요!” 녹이기 위해 동상을 가져갔고 주물 공장에서 녹여지고 있었다.

일꾼들이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이거 정말 희한하네!” 한 일꾼이 외쳤다. 동상의 납 심장이 깨졌는데도 전혀 녹지 않아. 그냥 던져 버리세.” 일꾼들은 행복한 왕자의 깨진 납 심장을 쓰레기 더미에 던졌다. 그것은 가없는 죽은 제비 옆에 놓였다.

p. 54-55 하늘 저 위에서, 하느님이 천사 한 명에게 명령했다. “그 도시에서 가장 귀중한 것 두 가지를 내게 가져오 라.” 천사가 그 도시로 갔다. 그는 깨진 심장과 작은 제비를 발견했다. 하느님은 천사에게 아주 만족했다. “넌 진정 그 도시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골랐구나. 이 작은 새는 천국에서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행복한 왕자는 나의 황금 도시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나이팅게일과 장미

[제 1 장] 고뇌하는 남자

p. 62-63 한 젊은 남자가 매우 상심해서 외쳤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빨간 장미를 가져다 주

면, 나와 춤을 추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내 정원에는 빨간 장미가 없어!” 그는 매우 슬퍼하며 자신의 정원에 앉았다. 열미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나이팅게일이 그를 비리보았다. 그녀는 자기 동자에 앉아 있었다. 그 동자는 아름다운 늙은 참나무 안에 있었다.

“단 한 송이도 없어!” 그가 또 다시 외쳤다. “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의 글을 공부했어. 난 철학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나의 행복이 빨간 장미 한 송이에 달려 있다니!”

나이팅게일은 그 남자를 가엾게 여겼다. ‘여기에 진실하게 사랑을 하는 남자가 있구나.’ 하고 그녀가 생각했다.

p. 64-65 “수많은 밤을, 나는 이 사랑과 이 남자에 대해 노래했어. 그의 입술은 루비처럼 붉고, 그의 머리카락은 숫처럼 검어. 하지만 그의 얼굴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해.”

그때, 나이팅게일은 그 남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 사랑은 내일 왕자님의 무도회에 갈 거야. 그녀에게 빨간 장미를 가져다 주면, 그녀는 내 사랑이 될 텐데. 난 그녀와 밤새 춤을 출 텐데. 하지만 상미가 없으면, 그녀는 날 보지도 않을 거야. 난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춤추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거야.”

나이팅게일은 그 남자에게 더욱 더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다. “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사랑에 대해 노래를 해.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느껴.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지만, 그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줘. 사랑은 값비싼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거야. 돈으로는 살 수 없어.”

p. 66-67 “나의 사랑스러운 여인은 하프와 바이올린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출 거야.” 남자가 말했다. “많은 귀족들에게 둘러싸이겠지. 그들은 전부 그녀와 춤을 추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을 거야. 내겐 그녀에게 줄 빨간 장미가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잔디 위로 몸을 던졌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는 자신의 커다란 불행에 대해 생각하며 잔디 위에 누웠다.

작은 초록빛 도마뱀이 그를 지나 달려가며 물었다. “그가 왜 울고 있는 거자?” 나비가 햇볕 속을 빠르게 날고 있었다. 그도 물었다. “그러게, 왜 우는 거자?” 테이지가 서늘한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그도 물었다. “그러게, 왜자?” 나이팅게일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빨간 장미 때문에 울고 있어.”

p. 68-69 “정말 말도 안 돼!” 작은 도마뱀이 웃었다. 그는 비관주의자로 유명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마음의 문제들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나무에 앉아서 사랑의 신비로움에 대해 생각했다.

몇 분 동안 깊이 생각한 후에, 나이팅게일은 공중으로 날았다. 그녀는 우아하게 정원 위를 미끄러지듯이 날았다. 그녀는 한기운데 어딘가에 내려앉았다. 그곳에, 멋진 장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이팅게일이 나무에게 말했다. “네가 나에게 빨간 장미를 주면,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줄게.”

그 나무가 대답했다. “난 하얀 장미만 갖고 있어. 차디찬 눈보다 더 희지. 해시계에게 가 봐. 거기 가면 나의 형을 만날 거야. 어쩌면 그가 너에게 줄 빨간 장미를 갖고 있을지 몰라.”

p. 70-71 그러자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날개를 폈다. 그녀는 한 번 더 공중을 날았다. 그녀는 해시계 옆에 내려앉았다. 그 옆에 장미 덩굴이 있었다. “나에게 빨간 장미를 줄 수 있나?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줄게.” 그러나 장미 덩굴이 말했다. “그럴 수 없어. 내 장미들은 태양처럼 노랗기든, 나의 형에게 물어 보는 게 어때? 그는 그 젊은 남자가 사는 집 창문 아래에서 자리고 있어. 그가 분명히 널 도와줄 거야.”

다시 한 번,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날개를 들어 올려 공중을 날았다. 그녀는 그 젊은 남자가 사는 집 창문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장미 나무 앞에 내려앉았다.

p. 72-73 “난 빨간 장미가 필요해. 네가 나에게 한 송이를 주면, 너에게 어떤 노래든 불러 줄게.” 그녀가 장미 나무에게 말했다. “내 장미는 빨강이지만, 너에게 줄 수 없어. 겨울이 너무 혹독했기 때문이야. 내 잎맥은 얼음 같아. 내 꽃들은 서리 때문에 다 죽었어. 올해는 빨간 장미가 피지 않을 거야.” 그가 나이팅게일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내가 원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까?” 그녀가 외쳤다.

“있어. 하지만 아주 끔찍해.”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난 아무 것도 두렵지 않아. 말해 줘.” “빨간 장미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무서워. 넌 달빛 속에서 노래를 불러야 해. 넌 네 심장에서 나오는 피로 그것을 물들여야 해. 넌 내 가시 하나로 너의 심장을 찔러야 해.” 장미 나무가 말했다.

p. 75 “동시에 넌 가장 감미로운 노래들을 불러야 해.” 하고 장미 나무가 덧붙여 말했다. “그런 송이 장미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가장 큰 대가지.” “난 내 목숨을 소중히 생각해.” 그녀는 장미 나무에게 말했다. “난 나무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하늘을 가로지르며 여행하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해. 그리고 아침의 상쾌한 공기와 들에 핀 색색의 꽃들도 좋아해. 하지만 사랑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한 마리 새의 심장의 가치는 인간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사랑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겠어.”

p. 76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날개를 펼쳤다. 그녀는 또 다시 공중을 날았다. 그녀는 정원 위를 미끄러지듯이 날았다. 그녀는 그 청년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잔디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참나무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다. “더 이상 울지 말아요. 빨간 장미가 곧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난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깊이 사랑하세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 제 2 장 】 위대한 희생

p. 80-81 참나무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그녀의 노랫말을 이해했다. 그는 깊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그 작은 나이팅게일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가 무척 그리울 것이다. 젊은 남자도 그녀의 노래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노랫말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로지 인간의 언어만 이해할 수 있었다.

참나무가 나이팅게일에게 말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곡만 불러 줘. 난 너의 감미로운 음악이 무척 그리울 거야.” 그래서 작은 나이팅게일은 참나무를 위해 마지막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노래가 끝나자, 남자가 일어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연과 종이를 꺼냈다. 그는 천천히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p. 82-83 청년은 자신이 사랑하는 소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세련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녀가 괴연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내 생각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녀는 전형적인 예술가야. 그녀는 아주 멋져.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워. 하지만 그녀는 진실하지 않아. 다른 예술가들처럼 이기적이야.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칠 생각은 결코 하지 않을 거야. 참 안됐어. 예술가들이 세상에 좀 더 유용한 것들을 주면 좋을 텐데.”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의 생각과 감정이 그를 지치게 했다. 그는 곧 침대에서 잠들었다.

p. 85 그 남자가 자고 있는 동안,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가슴을 가시에 대고 눌렀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밤새도록, 그녀는 투명한 달빛 속에서 노래했다. 그녀가 노래를 길게 부를수록, 가시가 그녀의 가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녀는 가장 순수한 사랑을 노래했다. 시간이 흐른 후 장미 덩굴 꼭대기에 장미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하나씩 부를 때마다 새로운 꽃잎이 생겨났다. 하지만 꽃잎들은 유령의 얼굴만큼이나 창백했다. 나이팅게일이 자신의 가슴을 계속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장미 덩굴은 소리쳤다. “좀 더 세게 눌러야 해, 작은 나이팅게일아. 좀 더 꼭 눌러야 해. 그러지 않으면, 아침이 되기 전에 장미꽃이 완성되지 않을 거야.”

p. 86-87 나이팅게일은 더욱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시간이 지나자, 열은 분홍색이 장미 잎들 속에서 보였다. 하지만 꽃잎들을 아름다운 붉은 색으로 만들려면 가시가 작은 새의 가슴을 꿰뚫어야 했다. “더 꼭 눌러, 작은 나이팅게일아. 더 꼭! 완성되기 전에 새벽이 오겠어.” 장미 덩굴이 경고했다.

그녀는 온몸을 꿰뚫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더욱 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놀랍게도 꽃잎들이 선홍색으로 변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아주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아주 희미해졌다. 이제 나무는 그녀의 노랫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그녀는 노래를 쏟아냈다. 이로 인해 나이팅게일 주위의 모든 것들은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p. 88-89 장미는 이제 진홍색이 되었다. 장미는 새의 마지막 노래를 들었다. 장미는 꽃잎들을 밀어 활짝 피웠고, 그 우아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냈다. “나이팅게일!” 장미 나무가 외쳤다. “장미가 완성되었어!”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나무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장미 나무 앞의 어린 잔디 속에 죽은 채로 누워 있었다.

그 날 나중에, 정오 무렵 젊은 남자가 잠에서 깼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다. 그의 눈 앞에 가장 아름다운 빨간 장미가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장미야! 이렇게 완벽한 장미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갖게 되다니 난 정말 운이 좋아!” 그가 외쳤다.

p. 90-91 그 남자는 손을 뻗어 부드럽게 그 꽃을 꺾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그 여자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집 현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아래에는, 그녀의 작은 개가 행복해 하며 누워 있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당신에게 가져왔어요. 당신은 내가 꽃을 가져오면 무도회에서 나와 춤을 추겠다고 말했지요. 오늘 밤, 이 꽃을 달아 주세요. 이 꽃은 내가 당신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를 경멸하며 쳐다보았다. “나에겐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내 드레스와 어울리지 않아요. 난 오늘 밤 의전관의 조카와 춤을 출 거예요. 그는 내게 아름다운 보석을 줬어요. 그것들은 시시한 꽃보다 더 가치가 있죠.”

p. 92-93 “당신은 정말 냉정하고 고마움을 모르는군요.” 남자가 외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장미를 길에 던졌다. 곧 무거운 짐을 싣고 있던 수레바퀴가 그 꽃을 밟게 버렸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고마움을 모른다고 할 수 있죠?” 젊은 여자가 외쳤다. “당신은 고작 학생이에요. 당신 신발에 은장식조차도 없잖아요. 의전관의 조카는 분명히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랑에 빠지다니 내가 너무 어리석어.” 젊은 남자가 혼잣말을 했다.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나에게서는 아무런 목적이 되지 않아. 그것은 사람이 가장 비이성적인 일들을 하게 하지. 난 이제부터 논리적인 것에만 전념해야 해. 철학과 형이상학에 내 인생을 바칠 거야.” 젊은 남자는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학문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를 열망했다.